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ON MY LIFE

가제 : 맹세코, 거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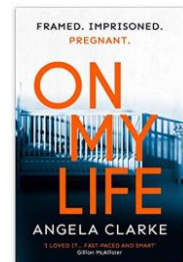
저자 : Angela Clarke

출판사: Mulholland Books UK

발행일: 2019년 9월 17일

분량 : 384쪽

장르 : 범죄/스릴러



- * “분노하며 읽게 되는 강력한 이야기. 평범한 스릴 외에 더 많은 것을 선사하는, 드문 범죄 소설”
- 『London Rules』의 작가 믹 헤론
- * “영리하고 전개가 빠른 스릴러. 팽팽한 긴장, 좁은 공간에 갇힌 두려움, 그리고 감동을 모두 느낄 수 있다.” - 『Dark Pines』의 작가 월 딘

더 이상 행복할 수는 없다고 느낀 순간, 일상은 물론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일들이 아무런 예고도 없이 덮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힘든 어린 시절을 이겨내고 겨우 평범한 삶을 찾아 큰 욕심 없이 살아가던 제나는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는 남자와 좋은 직장, 꿈만 같은 집까지 생기자 이런 걸 완벽한 인생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느낀다. 그러나 이제 즐기만 하면 된다고 확신하던 그 때 제나에게 살인자, 변태, 파렴치한 정신병자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증오하는 대상이 되고 만다. 곧 결혼을 약속한 남자의 딸, 겨우 열네 살 된 사랑스러운 소녀 앤젤라가 처참하게 살해당한 채로 발견됐기 때문이다. 출간 전부터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먼저 읽어 본 동료 소설가들의 칭찬과 감상이 전해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 소설에서 작가는 결혼을 앞둔 평범한 직장인에서 하루 아침에 교도소, 그것도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소문난 곳에 갇힌 제나의 시선을 따라가며 이 모든 사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잔인하고 지옥 같은 교도소 생활을 견디는 것만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약혼자 로버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제나는 가장 괴로울 때 찾아온 새 생명을 반드시 지키고, 온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는 살인자로 만들 만큼 자신을 철저히 미워한 사람, 진짜 살인자는 누구인지 추적하기 시작한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기업에 꼭 필요한 인재를 찾아주고 직무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사장의 굳은 신뢰를 받으며 성장 중이던 제나는 갑자기 생긴

일정 때문에 대신 고객을 좀 만나 달라는 사장의 부탁으로 새로 문을 열 어느 호텔의 관리 책임자와 처음 만난다. 흰칠한 키에 투박한 옷차림으로 회의실에 들어선 남자는 처음 눈이 마주치던 순간부터 제나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다. 업무 특성상 하루에도 여러 고객들과 만나고 그 중에는 정말 멋진 남성들도 꽤 많았지만 일을 할 때는 이성애에 대한 호감이나 관심은 철벽같이 배제한다고 동료들이 자주 놀리기도 하는 편인데, 그 날은 제나 스스로도 제어가 안 될 만큼 로버트라는 그 남자에게 모든 신경이 쏠렸다.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 안 날 만큼 멍한 상태로 첫 회의가 끝났으니, 그가 시간 되실 때 저녁을 함께 먹자고 제안하자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동료들이며 친구들은 ‘농부’랑 연애한다고 놀렸고 제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로버트는 지역유지로 알려진 대단한 재력가의 아들이었다. 급속히 가까워진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평생을 함께 살기로 약속하자 로버트의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그럼에도 제나는 굳건한 로버트만 믿고 기대며 그가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딸 앤젤라와 함께 할 새로운 인생을 꿈꿨다. 상상치도 못했던 행복이 바로 눈 앞에 다가와 그 속에 폭 빠진 사이,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제나는 피투성이가 된 채 부엌에 쓰러진 앤젤라를 발견한 순간 어딘가 단단히 잘못됐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경찰은 앤젤라를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제나를 지목했다. 사건 현장에서 피범벅이 된 제나의 옷가지가 발견된 데 이어 제나의 컴퓨터에서 구역질 나는 아동 포르노가 발견되자 의붓딸을 비정상적인 시선으로 보던 계모가 잔인하게 아이를 살해한 사건으로 온 언론에 대서특필됐다. 제나는 처음부터 누군가 걱정하고 계획한 음모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억울하다고 울부짖어도 소용없었다. 게다가 앤젤라가 죽은 채로 발견된 그 날부터 로버트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제나가 그를 죽이고 은폐했다고 확신하며 실종자 수색이 아닌 시신 수색을 시작했다. 철통 같은 교도소에 갇힌 채로 결백함을 증명하고 로버트도 찾아내야 하는 제나는 영화나 책에서 접한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교도소 생활에도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어린 아이를 죽인 살인자는 죄수들 사이에서도 별레처럼 취급되며 온갖 멸시와 고문에 가까운 괴롭힘을 당한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면회를 오는 사람이라곤 어릴 때부터 제대로 엄마 노릇을 못한 엄마 대신 보살펴 준 언니와 변호사가 전부였다. 누군가 같은 교도소에 있는 다른 죄수에게 사주해 감방 안에서 제나를 죽이려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고, 순박하고 착한 줄만 알았던 로버트가 전처는 죽었다고 했던 말이 모두 거짓이었으며 앤젤라의 친모인 그녀가 멀쩡히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제나는 철창에 갇힌 채 아들의 인생을 위락파락하려는 로버트 아버지의 무서운 진실과 함께 바로 가까이에서 자신에게 이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고 목숨까지 빼앗으려 하는 살인자와 로버트를 찾을 방법을 찾아 나선다.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는 결말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앤젤라 클락(Angela Clarke)은 선데이타임스 베스트셀러 『Social Media Murders』 등을 쓴 소설가다. 데뷔작 『Follow Me』는 아마존 ‘이 달의 라이징스타 데뷔작’으로 선정됐다. CBS, BBC 등 방송에도 다수 출연했다. 2015년에는 영 스테이션너 상(Young Stationers' Prize)을 수상했다.

제목 : THE LATECOMERS

가제 : 뒤늦은 후회

저자 : Helen Klein Ross

출판사: Little, Brown and Company

발행일: 2018년 11월 6일

분량 : 432 페이지

장르 : 역사/여성



★ 네덜란드, 러시아 판권 계약 / 「리얼 심플」 선정 2018년 최고의 도서

★ “이민자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세밀하게 묘사된 20세기 초의 삶과 어우러진, 역사 소설 팬이라면 즐겁게 읽을 만한 책” - 「커커스 리뷰」

★ “미국 역사의 한 세기와 비밀, 배신, 사랑과 죽음이 가득한 오랜 저택의 이야기가 첫 장부터 몰입하게 한다” - 『A Three Dog Life』의 작가 애비게일 토머스

제 1차 세계대전으로 세상이 아직 엄청난 혼란을 겪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맞이하기 전인 1900년대 초에도 막 시작된 새로운 세기와 함께 마법 같은 변화가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다. 촛불에 의지해 길고 긴 밤을 보내고 남은 집안일을 하거나 책을 읽던 시대는 가고 집집마다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한 때, 여성의 역할도 집에서 아이만 키우는 것에서 도시에 속속 들어선 공장에 나가 일을 하고 돈을 벌며 살림에 보태기 시작한 그 때 머나먼 아일랜드에서 건너온 열여섯 살 소녀가 있었다. 부모님의 허락 없이도 결혼할 수 있는 나이를 막 지났지만 누구도 축복해주지 않자 연인과 함께 낯선 땅에서 새 출발을 소망하며 과감히 대서양을 건너온 브리디는 배에서 내리기 전부터 이미 그 소망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되었음을 인정해야 했다. 가족도, 친구도 다 버리고 함께 떠나 온 연인 톰은 배 위에서 갑자기 열이 펄펄 끓더니 죽고, 브리디에게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나누었던 사랑의 기억과 함께 또 한 가지를 남겼다. 바로 뱃속의 아이였다. 그리고 브리디가 아일랜드에서 함께 배에 오른 이가 아닌, 예상치 못한 동행과 함께 미국 땅에 첫 발을 디딜 때, 갑자기 인생의 방향이 꺾인 이 난감한 상황 속에서 브리디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멀리, 코네티컷 뉴잉글랜드에서 가장 큰 저택으로 자리한 홀링워스 가문에도 엄청난 변화가 시작될 것임을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소설은 1908년부터 2018년까지 3세대를 넘나들며 급격한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한 집안에 찾아온 거센 풍랑과 그 여파, 깊이 묻어버린 비밀이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남긴 상처와 흔적을 흥미롭게 그린다.

이야기는 1927년 가을, 브리디가 홀링워스 저택에서 가사 일을 돕는 하녀이자 주인 어른신의 자녀들이 낳은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유모로 20여 년째 머무르던 어느 날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시작된다. 새라와 남편 에드먼드는 결혼 16주년을 맞아 오래 전부터 계획한 대로 이탈리아 여행을 떠나고 큰 저택에 남은 가족은 병으로 몸져누운 지 오래인 벤자민 홀링워드가 전부였다. 결혼 직후 돌아온 새라 부부 외에 벤자민의 다른 자식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다. 브리디는 전

날 저녁에도 주인 어르신이 식사를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는 것이 영 마음에 걸려 더욱 신경 써서 아침식사를 준비한다. 새라 내외가 집을 비운 사이 먼지 폴폴 날리는 전기 공사를 마치기 위해 마을의 유일하고 유능한 전기 기사가 아침 일찍부터 찾아오고, 브리디는 그에게 차를 내준 후 벤자민의 침실로 식사 쟁반을 들고 들어섰다가 오래 전부터 항상 대비했던, 그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다. 병으로 시력까지 오락가락하며 하루 종일 침대에서 거의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던 벤자민이 숨을 거둔 것이다. 전기 기사와 도움으로 해외에 나간 자식들과 학교에 가 있던 새라의 아들, 빈센트에게도 모두 연락을 하고 혼자 쓸쓸히 죽은 노인을 지키던 브리디는 부친의 뒤를 이어 벤자민을 치료해온 젊은 의사가 혈레벌떡 달려와 어딘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할 때서야 뭔가 일이 잘못됐음을 깨닫는다. 축 늘어진 벤자민을 들여다보던 전기 기사와 의심 대로, 간밤에 숨이 멎은 것은 병 때문이 아니라 독살 일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야기는 브리디가 처음 미국에 도착해서 옷 공장에 취직을 했다가 꼭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멋진 홀링워스 저택의 하녀로 뽑힌 날부터 벤자민이 타살인지 자연사인지 모를 죽음을 맞이한 날까지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따라간다. 구세대 어른들과 달리 ‘깨어 있는’ 지성인의 전형이던 새라는 브리디와 금세 친구처럼 가까워졌고, 두 사람의 우정은 결혼 후에도 변함없이 굳건했다. 통의 아이를 제대로 키울 형편이 아니었던 브리디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입양 보내야 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낳자마자 헤어진 아들은 늘 브리디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새라가 결혼 후 낳은 아이들을 비롯해 홀링워스 집안에 태어난 새 생명들을 브리디가 마치 자기 아이처럼 극진히 돌본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특히 새라의 아들 빈센트는 엄마로서의 역할보다 한 여자로, 한 인간으로 당당히 사는 일에 더 관심이 많은 새라보다 브리디를 잘 따랐고 이로 인해 사회적 계층에도 불구하고 탄탄했던 둘의 우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는 원인이 된다. 오랜 세월 둘 사이에 켜켜이 쌓인 오해와 원망의 감정은 새라의 아버지인 벤자민의 독살 가능성이 제기되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의심의 눈총을 견디지 못한 브리디는 결국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려 했던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홀링워스 집안에 이미 시작된 비극은 그리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무기로 억지로 봉인해 둔 끔찍한 비밀은 남은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다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세대가 바뀐 후, 온 미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9/11 테러로 홀링워스 저택에서 영원히 잠들 줄 알았던 그 비밀의 흔적이 발견된 후에야 비로소 세상 밖으로 흘러나온다. 대부분 브리디와 새라의 시선에서 전개되던 소설은 두 여성을 동시에 엄마라 믿었기에 사랑하고 증오했던 빈센트와 죽은 벤자민, 그리고 수십 년째 대대로 이어진 비극을 풀기 위해 나선 엠마 홀링워스의 시선을 함께 따라가며 극적 긴장감을 더한다. 급변하는 미국 사회의 단상과 더불어 과거는 결코 완벽히 사라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복합적이고 풍성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헬렌 클라인 로스(Helen Klein Ross)는 코넬 대학교와 뉴스쿨에서 공부를 마치고 소설 『What Was Mine』, 『Making It』 등을 발표했다. 「뉴요커」, 「뉴욕타임스」 등에도 소설을 기고했다.

제목 : DISTURBANCE

가제 : 방해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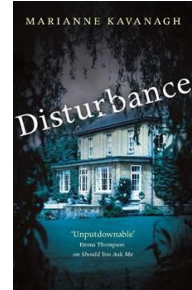
저자 : Marianne Kavanagh

출판사: Hodder & Stoughton

발행일: 2019년 3월 21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심리/스릴러



- * “떨쳐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불안감이 가득 맴도는 소설. 내 의혹이 제발 사실이 아니길 기도하면서 읽었다.” – 『Our House』의 작가 루이스 캔들리시
- * “소름 끼칠 정도로 사악한 마음, 무엇이 진실인지 가릴 수 없는 불안감, 좁은 곳에 갇힌 긴장감이 멋지게 조화를 이룬 소설” – 소설가 스텔라 더피(Stella Duffy)

마을에서 가장 큰 집에 무려 14년을 살면서도 동네 사람들과 차 한 잔 마신 적 없는 집주인 내외의 삶이 베일을 벗고 모두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성인 키보다 한참 더 높게 자란 생 올타리가 워낙 촘촘하고 두터워서 저택 안에서는 밝이, 밖에서는 안쪽이 아예 보이지 않는 ‘올드 렉토리’ 저택에 직장에 다니는 부부와 두 아들이 산다는 것 외에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었고 얼마 안 되는 인근 주민들은 더 이상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널찍한 정원과 맞닿은 곳, 별도 잘 들지 않는 험한 들판 한쪽에 거의 폐허로 남은 오두막에 새로 누군가 이사를 오면서 새라와 마이크 부부의 생활이 마침내 사람들의 수다 소재가 된다. 철옹성 같았던 올드 렉토리의 문이 열린 것은 인근 대학 신입생인 케이티라는 활달한 아가씨가 학비에 보태려고 주민들의 개를 산책시켜주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다니면서 시작된 큰 변화였다.

마이크와 20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해온 새라는 원래 일주일에 두 번씩 시내 변호사 사무실에 출근해서 각종 서류를 정리하는 보조로 일을 했다. 이제 막 대학생이 된 큰아들 제임스는 타고난 모범생이라 공부에만 매진하니 딱히 새라가 신경 쓸 일이 없었지만 어릴 때부터 자폐를 앓고 있는 둘째 아들 에드워드 때문에 가능한 요일만 나가서 일을 했다. 지루한 일상을 잊고 다른 일에 푹 빠져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새라는 출근하는 것이 좋았다. 하지만 겨울이 성큼 다가온 어느 싸늘한 가을날 아침, 새라가 찾은 나름 평화로운 이 삶은 마이크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명석한 두뇌와 사업 수단으로 젊은 시절부터 IT 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둔 마이크는 밤낮없이 일에 매달려 살았다. 그 날도 새벽부터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을 하던 중 허리를 제대로 빼끗해서 아예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아직 점심시간도 안 된 이른 오전에 다급한 음성으로 자신을 찾는 것부터가 불길하다고 느낀 새라의 예감 대로, 마이크의 상태는 꽤 심각했고 얼른 병원으로 옮겼지만 쉽게 낫지 않았다. 할 일이 태산인데 집에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제 몸 하나 마음대로 가누지도 못한다는 사실에 그럴지 않아도 급한 성미는 휘발유라도 부은 것처럼 하루에도 열두 번씩 활활 타올랐다. 무기한 휴직계를 내고 집에 꼼짝없

이 붙들려 남편의 수발을 들게 된 새라는 입만 열면 불 같이 호통을 치는 건 기본이고 원하는 서류나 약을 제 때, 똑바로 가져오지 않으면 거품물고 욕을 해대는 통에 거의 매일 욕실에 숨어 눈물을 흘렸다. 억박지를수록 새라의 실수는 더 잦아지고, 병 때문에 입맛을 싹 잃고 더 성마른 사람이 되어버린 마이크의 분노는 갈수록 고조되던 어느 날 뜬금없이 찾아온 케이티는 새라에게 그야말로 가뭄에 단비와 같았다. 에드워드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려나, 하는 마음으로 몇 년 전부터 애완견을 키웠는데, 마이크가 허리를 다친 후 이런 난리가 나는 바람에 제대로 산책도 못시켜주던 참이었다. 차가운 바람에 발그레하게 물든 볼과 마주보는 사람도 웃게 만드는 기분 좋은 미소로 첫 만남부터 새라의 호감을 얻은 케이티는 얼마 뽀인 새라에게 학비와 생활비가 궁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는 것, 최근 부모님이 모두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기댈 곳이 없는데 평생 사랑할 줄 알았던 남자친구마저 훌쩍 떠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까지 거리낌 없이 털어놓았다. 큰아들과 동갑인 아가씨가 지붕이 있다는 것 외에 집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곳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리에 안쓰러운 마음이 든 새라는 그 자리에서 개 산책을 매일, 하루에 두 번씩도 좋으니 말아 달라고 요청한다. 나이를 넘어선 두 사람의 우정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사교성이 좋아 누구와도 잘 지내는 케이티는 다른 집 개들도 말아서 산책을 해주고, 오가며 만난 마을 사람들에게 올드 렉토리 저택의 개도 돌본다고 이야기한다. 저택 안 이야기에 관해서는 전혀 아는 것이 없었던 주민들은 케이티가 보고 들은 대로 전하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집안 인테리어며 품격 있는 안주인, 최근 마이크가 겪은 부상에 큰 관심을 기울이며, 케이티를 다리 삼아 마침내 오래 전부터 한 동네에 살았지만 인사조차 해본 적 없던 새라와 안면을 튼다. 새라 역시 죄수처럼 집안에만 갇혀 마이크의 호통을 견디며 살다가 진심으로 마음 써주는 이웃들과 만나 큰 위로를 받는다. 하지만 마이크의 50세 생일날 성대한 파티를 벌이고 싶다는 그의 요구대로 새라가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몇 날 며칠에 걸쳐 쏟은 정성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다 물거품이 된다. 파티 바로 전날, 생일의 주인공인 마이크가 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부검 결과 사인은 약물 과용으로 밝혀졌고 허리 부상 이후 각종 질환이 겹쳐 여러 가지 약을 복용 중이었다는 주치의의 증언 덕분에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마이크의 죽음을 둘러싼 불쾌한 소문이 스며 나오기 시작한다. 12년 전, 올드 렉토리 저택에서 가사 일을 돕던 아가씨가 인사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까지 불거지고, 경찰이 흘러들을 수 없는 소문이라 판단하여 재조사를 벌이자 뽀뽀한 소문은 더욱 깊어진다. 수십 년 만에 나타난 마이크의 여동생은 왜 새라가 오빠를 죽였다고 확신할까? 우아하고 고상하게 헌신적으로 두 아들을 키우며 가정을 이끌어온 새라의 충격적인 진짜 모습,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도 주저하지 않는 그녀의 단호함이 케이티와의 ‘우정’을 지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섬뜩한 곳까지 뽀을 수 있는지 드러나기 시작한다.

<저자 소개>

마리엔 카바나(Marianne Kavanagh)는 「선데이 텔레그래프」 매거진과 「마리 콜레르」 등에 글을 기고해 온 저널리스트이자 소설가다. 『Should You Ask Me』, 『Don't Get Me Wrong』 등을 발표했다.

제목 : THE GIRL MADE OF CLAY

가제 : 도자기 소녀

저자 : Nicole Meier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8년 9월 25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여성소설



- * “두 번째 기회, 오랜 상처가 낫기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들에 관하여 정서적인 울림을 주는 이야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닳은 이가 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 - 『Every Single Secret』의 작가 에밀리 카펜터
- * “가족으로서의 의무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 때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보상을 감동적으로 그린 소설” - 베스트셀러 『Woman Last Seen in Her Thirties』의 작가 카밀 패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것도 아주 섬세하고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 정말 공기 외에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짠, 하고 나타나는 광경을 숨죽이고 지켜보던 아이에게 이 동화 같은 기억이 없느니만 못한 상처가 된다면, 아무리 아름다웠던 시간일지언정 부서지고 산산조각 난 조각처럼 절대 되돌릴 수는 없을까? 새라가 마법사처럼 조각을 만들어내는 아빠의 손길에 폭 빠져 살았던 어린 시절은 꼭 이야기책을 읽은 것처럼 다 날아갔다. 예술적인 영감을 주는 꼬마 요정이라며 자신을 예뻐하고 아끼던 아빠는 엄마와 어린 딸만 두고 혼자 홀연히 사라졌고, 어느 순간부터 새라의 곁에는 버림받았다는 상처에 치를 떨며 서서히 무너져 가는 엄마 밖에 없었다. 시간이 가고, 아무 것도 이해할 수 없었던 어린 아이에서 성인이 된 후 새라는 아빠가 무책임하게 집을 나갈 때 어린 딸을 맡긴 자신의 아내가 정서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무척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큰 배신감과 서운함에 몸을 떨었다. 어떻게 혼자 살겠냐고,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지도 못할 사람에게 딸을 두고 나가버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아이까지 낳은 후에도 예술계에서는 이름만 들어도 영광하는 그 위대하신 조각가의 이기적인 선택이 남긴 상처와 분노는 조금도癒어지지 않았다. 그러니 난데없이 ‘토머스 리처드 할로우 씨의 딸을 찾는다’는 전화가 걸려왔을 때, 할로우라는 성을 수십 년째 입에 올릴 일도 없고 누가 부르는 것조차 들은 적이 없었던 새라로써 기겁할 수밖에 없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리 멀지 않은 종합병원이라는 설명과 함께, 할로우 씨가 화재로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연락할 사람이 새라 뿐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환자의 상세한 상황은 가족에게만 전할 수 있다는 부연 설명과 함께 전화를 건 상대방은 당연히 물어야 할 말을 물었다. “할로우 씨의 가족이 맞으십니까?” 이름만으로 모든 사고가 정지되어버린 새라는 의도치 않게 아주 긴 뚫을 들인 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대답을 했다. “아닙니다. 전화 잘못 거셨어요.”

아버지가 집을 나간 후 딸과 둘이 남은 새라의 엄마는 집안에서만 지내면서도 청소, 빨래는 물론 어린 새라의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나가버린 아버지는 그 날 이후 한 번도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일한 연락처가 새라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라니? 나름 안정적인 가정을 꾸렸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최근 들어 남편 찰리와 결혼 생활에 최악의 위기가 찾아온 것 같아 불안에 떨던 그 때, 아이가 열 살이 되고 새라의 나이가 마흔이 넘도록 얼굴조차 본 적 없는 아버지는 왜 하필 지금에서야 나를 찾을까? 짜증이 치밀어 오르면서도 도저히 병원과의 그 첫 통화처럼 외면할 수 없었던 새라는 결국 아들 샘과 함께 병원을 찾아간다. 병원에서 만난 수십 년 만에 마주한 부녀는 크게 내색하지 못하지만 서로의 변화에 지나온 세월을 체감하고, 놀란다.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불이 나는 바람에 맨발로 도망 나오느라 귀중한 작품들도 다 불길에 타버렸다는 사실에 절망하던 토머스는 퇴원은 할 수 있지만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누군가 반드시 곁에서 돌봐줘야 한다는 의사의 지시에 오갈 곳이 없어 당황하고, 이미 병원을 찾아온 것만으로 적잖이 놀라게 만든 딸이 자기 집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자 더욱 당황한다. 물론 자신을 용서하거나, 애정이 있어서 나온 제안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억지로 꺼낸 말임을 리처드도 다 알고 있었지만, 어린 꼬마로만 기억하던 딸이 어엿한 주부가 되어 귀여운 손자까지 키우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한 그는 민망함을 무릅쓰고 딸의 집에 머물기로 한다. 갑자기 늘어난 식구를 가장 반긴 건 태어나 할아버지를 처음 본 샘이었다. 요즘 들어 늘 다투기만 하는 엄마아빠 때문에 나름 말 못할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던 데다, 파일럿인 아빠가 수시로 집을 비울 때마다 전전긍긍하며 열살이나 된 자신을 아기처럼 사사건건 다 챙기려고 드는 엄마도 점점 부담스러웠기에 자유롭고 호탕한 할아버지에게 자꾸 마음이 끌렸다. 하지만 잘 웃지도 않던 샘이 아버지에게 찰싹 달라붙어 친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새라의 심정은 복잡하기만 하다. 비행 스케줄을 더 늘린 남편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결혼을 끝낼 생각인지, 다른 여자라도 생긴 것인지 도통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어 불안한 와중에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아버지가 환자가 되어 나타나 물 한 잔도 직접 못 떠다 먹는 신세가 되어 일일이 수발을 들어야 하는 이 판국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다.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도리만 다 하자는 생각으로 견디던 새라의 인내는 토머스의 치졸한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폭발한다. 새라 외에 돌봐줄 사람이 없었던 토머스는 알고 보니 수십 년을 함께 산 여자 친구가 있었고, 그 사이에 이미 성인이 된 아들까지 있었다! 집에 화재가 난 날, 모자는 토머스와 크게 다투고 다른 곳에서 자느라 화를 면했고, 이후 토머스가 연락이 닿지 않자 백방으로 찾아다녔다는 사실까지 알려진다. 토머스는 왜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을까? 모두의 갈등이 최고조에 오른 그 순간부터, 전혀 다른 이유로 제 자리를 잃고 불안 해 하던 새라와 토머스, 두 부녀가 서로를 통해 깊은 오해와 착각, 실수를 깨닫고 마침내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이 천천히 시작된다.

<저자 소개>

니콜 마이어(Nicole Meier)는 『The House of Bradbury』를 쓴 소설가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태어나 현재 태평양 북서부 연안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글을 쓰고 있다.

NON-FICTION

제목 : DON'T BELIEVE A WORD

가제 : 그거, 말 되는군요

(부제 : 언어에 관한 놀라운 진실)

저자 : David Shariatmadari

출판사: Weidenfeld & Nicolson

발행일: 2019년 8월 22일

분량 : 288쪽

장르 : 어학(언어학)



★ 출판사 6곳이 참여한 경매를 거쳐 영국, 영연방 출판 계약 체결

★ 인류가 이룬 가장 큰 성취, 언어의 독특한 현상과 아홉 가지 오해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언어와 함께 한다. 일어나자마자 밤 사이 확인하지 못한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아침 뉴스를 읽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마주친 사람들에게 말로 인사를 건넨다. 그리고 중요한 일부터 사적인 감정까지 정보와 생각을 거의 대부분 글로 쓴다. 이메일로, 일기장에, 트위터에, 또는 보고서나 리포트로 형식은 모두 다르지만 언어가 사용된다는 사실은 공통적이다. 이런 활동을 단단히 마음먹고 작성한 다음에 하는 사람은 드물다. 거의 다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질 정도로 언어는 너무나 친근한데, 가끔 언어에 관한 재미 있는 사실을 접하거나 시인, 소설가, 극작가, 또는 낯선 종교적 언어를 접하면 언어란 얼마나 다양한지 새삼 생각하게 된다. 새들이 소통하는 방식이 네 살짜리 어린아이 수준에 이를만큼 정교하다는 것, 이누이트 족은 눈을 표현하는 단어만 50가지가 있다는 것, 포르투갈 어에는 절대 번역이 안 되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 등은 그저 신기하다고 감탄할 만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독특한 사실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평생을 매일 사용하는 언어가 과연 무엇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동시에 언어가 애초에 어떻게 등장했고, 시대와 문화의 변화로 급변하는 언어를 안타까워하거나 통탄할 것이 아니라 변화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만 이유도 알 수 있다. 「가디언」지에서 ‘버즈워드(유행어)’라는 제목으로 언어에 관한 칼럼을 기고해온 저자는 언어를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닌 ‘분석’하는 것이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대다수의 인식을 바로잡고, 왜 모든 사람이 자신이 쓰는 언어를 더 깊이 알아야 하고 충분히 그릴 수 있는지 이 책에서 이야기한다. 이를 위해 인류의 가장 위대한 업적이자 인간을 다른 동물과 비견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준 언어를 둘러싼 뿌리 깊은 잘못된 생각들을 바로잡고, 언어 본연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특징을 모두가 자신의 언어에서 발견할 때 보다 풍성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어떤 언어가 모국어이고 할 줄 아는 언어가 몇 개나 되든 상관없이 모두 최소 한 가지 언어는 할 줄 안다는 점에서 언어란 무엇이고,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되었으

며 이러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의문은 우리 모두와 관련이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실제로 먼 옛날에는 언어에 관한 지식, 즉 우리가 ‘언어학’으로 분류한 지식이 모두가 당연히 알고 활용하는 상식이었으나 특정 학자들만의 영역으로 바뀌고 상아탑 속에 갇히면서 단어의 기원을 알아야 그 뜻을 더 정확히 알 수 있다거나 문법 기준이 최근 수 년간 급격히 낮아졌다는 등 언어에 관한 잘못된 사실들이 퍼지고 불필요한 불안감만 유발됐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이에 저자는 ‘역사적 언어’나 ‘구문론’, ‘화용론’ 등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언어학적인 이론은 배제하고 언어가 왜 변화하는지, 언어에 담긴 의미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과연 언어가 없다면 인간의 사고 능력은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본질적인 의문의 답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탐색한다. 그리고 언어란 사회적 현상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보다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전반적인 인지 능력과 타인과의 상호작용, 예측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 등 외적인 요소가 모두 어우러지면서 자리를 잡고 또 그에 맞게 바뀌는 소통의 도구라는 저자의 결론을 제시한다. 더불어 언어의 역사란 곧 언어에 발생한 영향의 역사이고 더 넓은 관점에서는 인류의 역사라는 것, 따라서 언어의 변화는 언어 자체의 변화에 국한되지 않고 정치, 기술, 사회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목차>

머리말

1. 영망이 되어버린 언어
2. 단어의 기원에 진짜 뜻이 담겨 있다
3. 우리는 동물과 대화할 수 없다
4. 입에서 나온 소리는 직접 통제할 수 있다
5. 이 말은 번역이 안 될걸
6. 말하는 것이 곧 의미
7. 이탈리아어도 하나의 언어다
8. 다른 언어보다 더 나은 언어가 있다
9. 언어는 본능이다

<저자 소개>

데이빗 샤리아트마다리(David Shariatmadari)는 「가디언」에서 작가 겸 편집자로 일해 왔다.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공부하고 런던 대학교에서 음운론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목 : ASTROQUIZZICAL

가제 : 기묘한 밤하늘

(부제 : 우주 가계도에 관한 흥미로운 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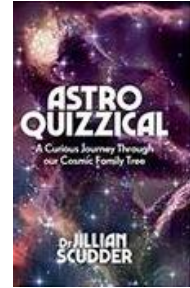
저자 : Jillian Scudder

출판사: Icon Books

발행일: 2018년 6월 12일

분량 : 224쪽

장르 : 과학(천문학)



- * “천문학이 생소한 독자들에게 밤하늘과 그 속에 담긴 경이로움을 충분히 깊이 있게 설명해주는 책” – 「Night」 매거진
- * “천문학에 관심이 있지만 접할 기회가 한정적인 청소년과 성인 모두가 읽기에 좋은 훌륭한 책이다” – popularscience.co.uk

대도시를 벗어나 밤이 되면 인공적인 불빛이 거의 없어 정말 칠흑같이 캄캄한 하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밤이 원래 이렇게 어둡구나, 하는 새삼스러운 느낌과 함께 까만 하늘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별을 비로소 인지한다. 아침에 일어나 다시 잠들 때까지 해야 할 일, 당장 눈 앞에 떨어진 일들을 처리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살다 보면 우리가 거대한 우주의 한가운데, 유일하게 생명이 살아 숨쉬는(혹은 그렇다고 알고 있는) 행성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지만, 눈 앞에 펼쳐진 별과 마주하면 마침내 깨닫고 아주 작은 존재가 된 느낌에 사로잡힌다.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외에도 지구에는 엄청나게 많은 다른 인류가 살고 있다는 것, 지금 서 있는 곳은 지구라는 행성의 표면 중 한 부분이고 지구는 또한 크기를 헤아릴 수 없는 은하계의 무수한 행성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인지하건 그렇지 않건, 늘 우주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캄캄한 하늘을 올려다보아 보이는 저 별들이 없었다면, 더 구체적으로는 그 별들이 탄생하면서 일어난 폭발과 충돌이 없었다면 지구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소, 혈액 속에 포함된 철, 인간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금과 은 같은 귀금속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천체물리학자이자 블로그를 통해 사람들이 어렵게만 느끼는 자신의 연구분야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우주의 신비로운 특징에 답변을 제공해온 저자는 인간과 우주의 이 끈끈한 유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독특한 방법을 고안했다. 우주의 구성을 ‘가계도’로 표현한 것이다. 엄마아빠가 나를 낳지 않았다면 나라는 존재는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다들 한 번씩 하듯이 우주와 인간의 관계도 그와 같이 잊지 않고 떠올릴 수 있도록 개발된 저자의 우주 가계도에서 부모 세대는 지구, 자식 세대는 우리 인간이다. 지구와 동일한 가스 구름 속에서 형성되어 함께 태양계를 구성하는 행성들은 부모의 ‘형제자매’다. 태양은 우리의 부모님을 낳은 증조부이고, 태양의 윗대에는 은하수가 자리하며 은하수 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방대한 은하계가 있다. 그럼 은하계 위에는? 우주가 탄생한 시점, 가장 초창기에 이루어진 ‘양자 요동’으로 불리는 찰나의 생성과 소멸 현상이 있다. 이처럼 우리가 익히 아는 나무 모양의 가계도 형태로 차례차례 정리할 수 있는 우주의 구성은 우리와 이 거대한 우주의 관계를 훨씬 더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저자는 이 기본적인 개념을 토대로 가계도의 한 층을 차지하는 각 세대가 어떤 역할을 하고, 현재 어떻게 기능하고 있으며 지구 표면에 서 있는 인간의 시선에서 볼 수 있는 특징들이 왜 나타나는지 상세히 설명한다. 지구에 떨어지는 유성부터 블랙홀, 은하계 전체와 태양계 또는 지구와의 관계까지 알고 보면 복잡한 것보다 신기한 이야기가 더 많은 천체물리학의 연구 성과를 재미 있는 이야기를 읽듯이 배울 수 있다. 현실에 꿈쩍없이 붙들린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 지금 자신이 처한 현실, 묶여 있는 장소 또는 시간은 거대한 우주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홀가분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우주의 특성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책이다.

<목차>

머리말

1장. 인간의 관점

2장. 달

3장. 태양계

4장. 별

5장. 별의 죽음

6장. 은하계

7장. 우주 전체

<저자 소개>

질리언 스쿠더(Jillian Scudder)는 천체물리학자로 현재 오하이오 주 오벌린 칼리지에서 부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4년전부터 위 저서와 동명인 블로그 ‘Astroquizzical’을 통해 우주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답을 제시하고 있다. 「포브스」, 「미디움」 등에도 글을 기고해 왔다.

제목 : BISCUITS AND COOKIES

가제 : 비스킷과 쿠키, 세계사 속으로 풍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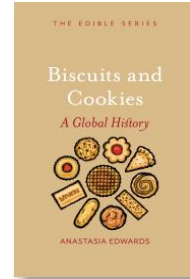
저자 : Anastasia Edwards

출판사: Reaktion Books

발행일: 2019년 5월 15일

분량 : 128 페이지

장르 : 역사 / 음식



*** 전 세계 어디에나 있는 모두의 간식, 비스킷과 쿠키의 방대한 역사와 종류를 사진 등 다양한 시각 자료와 함께 총 정리한 책**

ナイフ나 포크 등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절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먹는 몇 안 되는 음식, 많은 문화권에서 아이가 엄마 젖을 뗄 시기에 가장 먼저 손에 쥐어주는 첫 번째 음식, 전 세계 어느 슈퍼마켓이나 작은 구멍가게에서도 구입할 수 있고 심지어 머나먼 네팔 히말라야 베이스캠프에서도 판매하는 음식, 한 끼 식사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하루 중 어느 때고 잘 어울리는 음식,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음식은 무엇일까? 바로 모양도, 재료도, 색깔도 크기도 각양각색인 비스킷과 쿠키다. 영국에서는 비스킷, 미국에서는 쿠키로 불리는 이 작고 보통 동그란 음식은 초콜릿칩이나 건포도를 듬뿍 품고 있기도 하고, 알싸한 생강 맛이 일품이거나 한 입 배어 물면 달콤함이 가득 퍼지는 진한 단맛이 두드러지기도 한다. 음식 역사가인 저자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맛과 형태로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에게 사랑받아 온 비스킷과 쿠키의 풍성하고 긴 역사를 이 책에서 간결하게 정리했다.

인류가 처음으로 비스킷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기원전 4천년 전부터 이 음식이 존재했음을 알려준다는 놀라운 사실부터 역사도 것처럼 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스킷과 쿠키의 역사는 중동 지역에서 만들어진 초창기 형태부터 중세시대 유럽을 거쳐 ‘신세계’로 이어진다. 미국에서만 한 해 5억 ‘마리’ 이상이 만들어진다는 동물 모양 크래커, 독일 수도원에서 주로 만들었다는 정통 쿠키 레브쿠헤, 미국에서 특히 사랑 받는 브라우니와 설탕 쿠키, 그리고 영국 문화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쇼트브레드와 버터가 가득 들어간 티 쿠키, 뉴질랜드와 호주를 대표하는 안작 쿠키와 ‘걸 가이드’ 비스킷까지, 익숙하지만 뜻밖의 역사와 의미가 담긴 비스킷과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나 맛과는 크게 다른 유서 깊은 비스킷, 번듯하게 차려진 우아한 테이블 한 켠을 차지할 법한 비스킷부터 편하게 부스러기를 막 흘려가며 집어 먹을 수 있는 비스킷까지, 그야말로 비스킷과 쿠키의 모든 것이 다루어진다. 가톨릭 미사에서 사용되는 밀떡, 옛날 선원들이 즐겨 먹었던 무가당 비스킷, 브뤼셀에서 먹을 것이 없어 배를 곯던 사람들에게 아우구스티누스회 소속 수도사들이 나눠준 일명 ‘그릭 브레드’ 등 특별한 상황, 여건에 맞게 만들어지고 유행한 종류와 더불어 제빵사들 사이에 치열한 경쟁을 일으킨 프랑스 마카롱이나 두 번 구워서 만드는 가장 오래된 형태의 비스킷 중 하나인 비스코티를 둘러싼 재미 있는 이야기도

눈길을 끈다.

인터넷이 없던 시대를 상상할 수 없게 된 지금, 특정 웹사이트에 이용자가 접속해서 살펴본 내용과 이용자의 정보가 담긴 파일은 전 세계적으로 ‘쿠키’라 불리고, 영어권에서는 비스킷과 쿠키가 들어간 엉뚱한 관용구도 여러 가지가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명칭부터 우리 생활에 깊숙이, 다방면에서 다가온 음식이 또 있을까? 저자는 이토록 보편적이고, 다양한 매력이 가득한 비스킷과 쿠키가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왜, 어떻게 만들어지고 누가, 어떤 상황에서 먹고 활용해 왔는지 차근차근 추적하고 인류가 이 특별한 음식을 만들고 보관하기 위해 사용해온 각종 도구와 그릇도 함께 보여준다. 페이지마다 컬러로 삽입된 다양한 시대, 지역의 자료를 보는 것만으로도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비스킷과 쿠키에 관한 사실, 이야기, 책 뒷부분에 소개된 다채로운 레시피까지 풍성한 정보와 흥미로운 역사가 종합된 책이다.



This Uneeda Biscuit advertisement was part of a campaign that paved the way for the mass popularization of cookies in the U.S. and worldwide.



Modern lebkuchen stall in Aachen, Germany.

<목차>

머리말

1. 생존, 그리고 축하: 기원전 50년 - 1485
2. 달콤함과 가벼움: 1485 - 1800
3. 황금기: 19세기
4. 대륙을 건너: 20세기
5. 미신과 형태의 변화: 21세기, 그 이후

부록: 비스킷 버킷리스트

레시피

<저자 소개>

아나스타샤 에드워드(Anastasia Edwards)는 작가, 음식 역사가로 저서로는 『Saigon: Mistress of the Mekong』 등이 있다.

제목 : WORK THE PROBLEM

가제 : 퇴사는 답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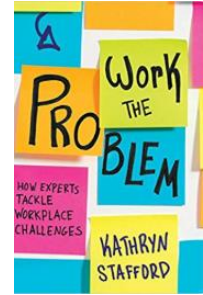
저자 : Kathryn Stafford

출판사: Association for Talent Development

발행일: 2018년 6월 7일

분량 : 168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비즈니스



*** 다양한 업무 현장에서 관리자/중간관리자가 겪는 골치 아픈 문제들, 사표 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떠오르지 않는 심각한 문제를 10가지 가상의 시나리오를 통해 살펴보고 색다른 해결 방법을 제시한 책**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한 회사에서 쪽 일하다가 팀장으로 승진한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업무 기술이 부족하다 느낀다. 마케팅 회사의 관리자는 좀 더 특이한 것, 새로운 것을 찾는 상사와 일일이 챙겨야 하는 부하 직원들 사이에서 매일 숨통이 꼭 막히는 기분에 시달린다. 회사 운영 팀의 관리자는 평소 최신 기술이라면 다 꿰고 있고 기술로 해결 못할 일은 없다고 굳게 믿다가, 회사 물류창고의 시스템 현대화를 추진하고서야 그렇지 않은 일도 있음을 체감한다. 우리가 직장에서 직접 느끼거나, 친구, 가족을 통해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같은 결말로 나아간다. “그냥 때려칠래. 내 힘으론 도저히 안돼.” 산더미처럼 쏟아지는 일감,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일을 보태기만 하는 인간들만 득시글대는 사무실, 하지만 당장 해결하지 못하면 큰 호통이나 불이익이 떨어질 것이 자명한 상황이 되면 대다수가 이처럼 다 놓고 돌아서 나오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서 문제와 정면으로 맞서면 어떻게 될까? 저자는 다양한 업계와 업무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친숙한 상황을 통해 사표를 던지는 대신 정면 승부를 택한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저자가 심층 자료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탄생한 10가지 시나리오는 직장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를 그대로 살려 문제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재현하고, 피할 수 없는 문제와 봉착했을 때 어떤 마음가짐과 기술, 역량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지 보여준다. 또한 10편의 시나리오마다 학습, 커뮤니케이션, 자기계발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 두 명이 상세히 밝힌 견해를 덧붙여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직종과 무관하게 관리자로 승진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일만 할 때가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덜 힘들다고들 이야기하는 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조직도의 층은 급격히 축소되고, 보고 체계는 엄격한 순서대로 진행되기보다 그때그때 프로젝트마다 임시로 관리자가 정해지는 경우도 크게 늘어났다. 과거에는 업무 예산이나 자원, 구성원이 받는 포상과 급여, 업무 환경이 관리자 손에 대부분 좌우됐지만 일종의 ‘권한’으로 여겨지던 그러한 항목을 관리자가 아닌 회사 차원에서 일괄 관리하거나 반대로 직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사례

도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중간관리자는 원래 하던 업무가 더 늘어나는 동시에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도 늘어나고, 다양한 형태로 근무하는 직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책임까지 맡게 된다. 누구나 자신의 직속 상사는 말이 잘 통하고 일도 잘하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그런 상사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 정도로 관리자는 ‘무능한 월급 도둑’ 혹은 ‘쓸데없이 직원들을 괴롭히고 자기 욕심만 채기는 자’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왜 이런 상황이 어디에나 존재할까? 일반 직원일 때 이런 문제를 뼈저리게 느끼고도 자신이 관리자가 되면 아무 것도 개선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점점 더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조직 구성과 관리 체계에서 관리자가 겪는 이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을 그만두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산업계와 달라진 조직 문화, 새로운 세대의 요구에 좀 더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는 어떤 직업군에서나 맞닥뜨릴 수 있는 조직 관리 측면에서의 불가피한 문제를 심층 분석하여 관리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한다. 직장에서도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느낄 때, 자신이나 동료 한계에 다다랐을 때 현실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안내서다.

<목차>

서문 / 머리말

1. 가족은 점점 희미해지고 – 조 월모어의 의견 / 벤 록원의 의견
2. “메모 읽었어?” – 톰 카이든의 의견 / 알란 드 백의 의견
3. 버스 운전 – 비비안 블레이드의 의견 / 알란 드 백의 의견
4. “내가 데리고 일하는 직원들은 다 훌륭해” – 크리스토퍼 D. 애덤스의 의견 / 셸린 로비의 의견
5. 꼭대기에는 방이 없다 – 톰 카이든의 의견 / 비비안 블레이드의 의견
6. 조직 샌드위치에서 얇게 깔린 중간관리자 층 (생략)
7. “여기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략)
8. “늘 괜찮았으니까요” (생략)
9. 새로 온 대학 행정 책임자가 맞닥뜨린 교수들의 근시안 (생략)
10. 새로운 의료보건 시스템을 만들다 (생략)

<저자 소개>

캐스린 스탠포드(Kathryn Stafford)는 도서 편집자, 매거진 작가로 오랫동안 일했다. 스미소니언 연구소, 미주기구 등과 같은 기관과 조지워싱턴 대학교에서도 편집을 맡았다. 현재는 ATD Press의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

제목 : LOVE STREET

가제 : 이런 남자, 저런 남자

저자 : Leah Rachel

출판사: Morrow Gift

발행일: 2019년 6월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여성/에세이



*** 1980년대 펄프 매거진을 표방한 그래픽, 사진, 에세이 모음집 - 시선을 잡아 끄는 다양한 시각자료와 함께 잡지처럼 가볍게 읽기 좋은 짭작한 글로 이야기하는 현대 여성의 사랑과 삶**

어두운 밤, 마음 편히 무슨 이야기든 나눌 수 있는 친구와 술잔을 앞에 놓고 최근에 만난 사랑에 대해, 혹은 얼마 전에 깨진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는 소중한 시간은 다른 것과 대체가 불가능하다. 남자들끼리 있을 때 하는 이야기가 따로 있다지만 여자들끼리 있을 때 하는 이야기만 할까? 걸핏하면 사랑에 빠지는 친구, 오랜 연인과 시들해진 관계에 힘들어하는 친구,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잘생기고 몸매 좋은 남자면 다 좋은 친구까지, ‘섹스 앤 더 시티’가 현대 여성들의 호응을 얻은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잘 구겨지는 종이에 다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이미지를 실어 반질반질 코팅된 종으로 된 잡지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됐던 일명 ‘펄프 매거진’의 형식을 빌린 이 책에서도 여자들끼리 공감할 수 있는 내밀하고 속 시원한 사랑 이야기를 가득 만날 수 있다. 무거운 글이 싫증날 때 아무데나 펼쳐서 읽어도 좋은 잡지 같은 이 책은 눈길에 머물게 하는 조금은 요란하고 독특한 사진과 이미지 사이사이에 폭소와 눈물, 공감의 한숨을 절로 이끌어내는 저자의 솔직한 연애사와 함께 사랑, 섹스, 다이어트, 데이트, 친구관계, 패션 등에 관한 직설적인 충고가 담겨 있다. 낱말 맞추기 퀴즈, 레시피, 퍼즐, 별자리 운세 등 짭작한 글과 함께 다채로운 형식으로 지루할 틈 없이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너무 노골적이라 지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너무나 현대 여성의 현실 그 자체이기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끼게 되고 친근함과 함께 색다른 영감을 얻게 된다.

세상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 사람들이 경험한 연애 이야기에든 희한한 사연들이 많다. 저자가 해변에서 우연히 만난 조지와의 짧은 연애도 그런 점에서 만만치 않다. 갑자기 사진에 꽃혀서 낯은 카메라를 들고 해변에 나가 풍경을 찍던 저자는 텍수염을 멋있게 기르고 서핑보드를 들고 나타난 조지에게 한 눈에 반했다. 하지만 그는 추근대는 타입이 아니었고, 첫 만남에서 너무 얼어서 바보 같은 대화만 하고 헤어진 것이 못내 아쉬웠던 저자는 며칠 뒤 또 다시 해변에서 그와 마주치자 이 기회를 붙잡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데이트가 시작됐고, 조지에게서 이상한 구석이 조금씩 발견됐지만 저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몇 주를 만나는 동안 그는 한 번도 자신의 집에 저자를 초대하지 않았고, 처음으로 함께 밤을 보낸 것도 저자의 아파트였는데 다음 날 지갑에 돈이 빈 것은 물론이고 새로 사둔 큼직한 감자 칩이 사라지는 어리둥절한 일이 벌어졌다. 조

지의 실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른 아침에 밝혀졌다. 해변 근처 쓰레기통을 열심히 뒤지는 모습이 저자에게 목격된 것이다. 혹시 노숙자냐는 저자의 물음에, 조지는 노숙자가 아니며 그냥 집이 없을 뿐이라는 알 수 없는 대답을 했고 두 사람의 관계는 그 날 끝이 났다. 하지만 저자는 이후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번듯한 직업의 남자와 몇 개월을 만나고, 집이 세 채나 있는 또 다른 ‘돈 많은’ 남자와도 연애를 했지만 조지와 해변을 거닐었던 어느 저녁, 저무는 해를 보면서 갑자기 벅차오른 감정에 울음을 터뜨렸던 자신을 말없이 보듬어주던 조지가 더 많이 그립다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자동으로 귀 기울여 듣게 만드는 탁월한 이야기 실력으로 “완벽한” 남자라 확신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바치느라 친구들까지 다 나가 떨어지고 심지어 인생까지 다른 길로 바뀌고 나서야 그가 반사회적 인격을 가진 괴물로 드러난 사연부터 돌리 파튼을 신봉하던 시절에 벌어진 코믹한 사건을 전한다. 사랑과 고통 속에 허우적대다가도 다시 벌떡 일어나 잘 살아가는 현대 여성들을 응원하는, 볼 것도 많고 생각해볼 거리도 많은 흥미로운 책이다.

<목차>

머리말

해변에서 만난 조지!

머리 vs. 가슴

아름다워지는 법

연대순으로 정리한 나의 오르가즘

하지 말아야 할 일 목록

그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대화

한 번도 보내지 못한 편지

레드불과 광견병

라이프스타일 충고

사랑에 빠지는 법

워든! 돌리가 하는 거면 다 좋아!

(이하 생략)

<저자 소개>

레아 레이첼(Leah Rachel)은 유니버설, 라이언스게이트, 아마존, HBO 영화와 TV 쇼 작가로, 활동해 왔다. 최근에는 넷플릭스 시리즈 ‘Chambers’에 쇼 러너(프로듀서)로 참여했다.

제목 : BUILDING A LIFE WORTH LIVING

가제 : 그래도 아직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자 : Marsha Linehan

출판사: Random House

발행일: 2020년 1월 예정

분량 : 424 페이지

장르 : 회고록



★ 수십 만 달러 규모로 출판 계약 체결 / 폴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판권 계약

★ ‘20세기 가장 중요한 과학적 성과’(타임 지)로 꼽히는 변증법적 행동치료를 개발한 심리학자의 회고록 – 정신병을 앓던 소녀가 무수한 정신질환자를 도운 치료법을 개발하게 된 과정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몸을 태우고, 칼로 긁고 팔다리가 묶이면 온 힘을 다해 머리를 부딪히며 자해를 하기 시작한다면, 도저히 그 분노의 근원을 알 수도 없고 가라앉힐 수도 없어서 독방에 가두고 독한 진정제를 투여하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절망적인 지경에 이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국에서만 매년 1,800만 명이라는 가공할 만한 인구가 ‘경계성 성격장애’로 분류되는 이 심각한 정신질환이라는 진단을 받고 있다. 다른 정신질환보다 유독 자살률이 높고 특성상 전문 기관에 수용되는 비율도 높아서 환자를 가장 아끼는 가족마저 죽음 외에는 이 절망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병에 1990년대 초부터 환한 희망의 빛이 내리쬐기 시작했다.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학자가 개발한 획기적인 치료법 덕분이었다.

이 책의 저자인 마샤 리네한 박사가 개발한 변증법적 행동치료는 1960년대에 개발된 인지행동 치료와 함께 전 세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심리요법에 가장 큰 발전과 변화를 몰고 온 양대 치료로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타임 지가 ‘20세기 가장 중요한 과학적 성과’ 중 하나로 꼽을 정도로 실제 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이 지난 20년 이상 검증되었다. 저자가 임상 전문가들을 위해 쓴 560여 페이지 분량의 전문 서적은 ‘걸작’이라 일컬어지고, 1천 명이 넘는 의사들이 이 특별한 치료법을 익혀 임상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2011년, 저자가 이 엄청난 업적 외에 다른 이유로 다시 한 번 관련 학계와 대중의 관심을 모은 일이 있었다. 어느 때와 같이 자신이 개발한 치료법에 관한 강연을 하러 어느 정신병원 회의장 연단에 오른 저자가 전 세계 무수한 환자들을 정신적 지옥에서 빠져나오도록 도울 수 있었고 도와야만 했던 진짜 이유를 처음으로 밝혔기 때문이다. 열여덟 살 때 저자 자신이, 연단에 선 바로 그 병원에 수용되어 26개월간 수십 차례의 전기충격요법과 강력한 진정제, 정신분열증 치료제 복용을 비롯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이었다. 지옥 같은 곳이 아니라 지옥 그 자체였던 기억, 왜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많은 애’로 누구나 인정하던 활달한 소녀가 온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자해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본인도 의사도 가족도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 때 저자는 그 지옥에서 나간다면 반드시, 여기 갇혀 있는 환자들을 꺼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말리라 결심했다. 전 세계 수십, 수백 만 명의 정신질환 환

자들을 구원한 심리요법은 그 때부터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저자는 수십 년간 입에 담고 싶지 않았고 병의 특성상 드문드문 섬광처럼 번쩍이는 순간 외에는 잘 기억나지 않는 그 당시의 이야기를 굳이 공개한 이유는 스스로 떳떳하고 싶었기 때문도, 주목받고 싶어서도 아니라고 단언했다. 이유는 단 하나, 가장 절망적이고 아무 대책이 없다고 고개를 가로젓게 만드는 정신질환도 분명 나아질 수 있고,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던 사람도 전혀 다른 삶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처음 사람들 앞에서 저자가 밝힌 자신의 이야기는 곧바로 뉴욕타임스 1면에 보도될 정도로 주목 받았고, 아픈 과거를 딛고 천재적인 치료법을 탄생시킨 저자의 집념과 노력, 특히 남성 지배적인 학계에서 당당히 최고의 성과를 거둔 능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탄을 자아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보낸 유년시절, 갑작스러운 발병, 수녀로 살았던 몇 년의 시간과 심리학자가 되고 독보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모두 담아냈다. 난치병을 극복하며 다가서려는 인간의 한계와 능력에 새삼 놀라게 되는, 인상적인 회고록이다.

<목차>

서문 - 앨런 프랜시스(Allen Frances) 박사

1부.

- 1장.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만들어라
- 2장. 지옥으로 추락하다
- 3장. 당신들 생각이 틀렸다는 걸 증명할 것이다
- 4장.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무력한 환경
- 5장.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사람
- 6장. 털사를 떠나야만 했던 이유

2부.

- 7장. 시카고로 떠나다
- 8장. 지적, 영적 변화
- 9장. 과학자처럼 생각하는 법
- 10장. 세나클 채플, 깨달음의 순간 (이하 생략, 19장까지)

3부. (20-33장)

4부. (34-36장)

<저자 소개>

마샤 리네한(Marsha Linehan)은 행동과학에 불교의 수용 정신, 마음챙김 명상의 원칙을 결합시킨 ‘변증법적 행동치료’를 개발한 저명한 심리학자다. 워싱턴 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수 겸 정신의학·행동과학 부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행동연구·치료클리닉 대표를 맡고 있다.

현재까지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저자가 개발한 변증법적 행동치료 훈련을 받았다.